

광양시, 보건진료소 활용... 주민 건강격차 해소한다

보건소장이 직접 지역주민 찾아
밀착 보건·의료 서비스 등 제공
주민 목소리 보건사업에 반영해
“건강·삶 세심히 돌보는 지킴이”

전라남도 광양시가 도심을 비롯한 농어촌 모든 현장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건강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향후에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의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설치된 보건의료시설로, 현재 시에는 총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와 건강증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농촌지역은 노령층의 비율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많아 진료소가 가까이 있더라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광양시는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전환



광양시가 보건진료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마을 건강총전소’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노인 피부건조증 관리’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광양시 제공**

했다.

이에 따라 관내 14개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 진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건강 사랑방’ 보건진료 전담인력은 관할 93개 마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매일 오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은 물론,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계절별 감염병 예방, 폭염·한파 대비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기존에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건진료소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건강 수치를 꾸준히 점검받으며 진료 시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랑의 건강콜’을 통해서도 만성질환자, 암환자, 거동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일반관리군은 2개월에 1회 유선 전화를 통해 생활 안부를 확인한다.

장기 투약 대상자의 약물 복용 점검과 치료관리 상담, 만성질환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건강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이 3회 이상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일반 및 응급환자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건강 아지트’, 각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체 건강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마을 건강총전소’ 등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보건진료소 간의 소통 창구이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 운영 현황과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시는 향후에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공통적으로 인식·공감하는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수렴된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양숙광양시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진료소는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세심하게 돌보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첫 삽 뜬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20일 광양읍 칠성리 131번지 일원에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조감도)

이번 기공식에는 정인화광양시장을 비롯해 권항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양읍 칠성리에 건립될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연면적 3955㎡에 달하며, 1층에는 카페와 공유주방이,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착공해 올해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마감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자치센터는 향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여가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광양시장은 “그동안 광양읍에는 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해 인근 도시나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첫걸음이자 시민 중심의 주거복지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감 탄저병 등 과원 관리·예방적 방제 당부

올해 이상기후로 과수 전반 피해

전라남도 광양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감 탄저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내 농가에 철저한 과원 관리와 예방적 방제를 당부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는 저온 등이 상기후로 인해 지난해와 달리 연초부터 과수 전반에 수정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철은 고온 현상과 장마철 집중 호우가 예상돼 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병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탄저병은 감의 잎, 줄기, 열매에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병해로, 전년도 수확 후 방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과원에서 균이

잠복해 있다가 고온다습한 생육환경이 조성되면 발병한다. 감염이 시작되면 포자가 인근 과원으로 퍼지거나 장마철 빗물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발병 시 열매에 갈색 또는 암갈색 병반이 점차 커지며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병든 열매는 2차 전염원이 돼 주변 과실로 확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과원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PLS)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5월부터 7월까지는 예방제를 중심으로 월 1회 살포하고, 병반이 과원에 1~2개 보이기 시작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치료제를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살포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꿈다락 학교’ 2년 연속 선정

일상서 문화예술교육 체험
‘탐정 사진관’ 등 모집 중

전라남도 광양시는 사라실 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지역 생활권 내 공간에서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수도권 28개, 비수도권 39개 등 전국 61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단 두 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미를 더했다.

사라실 예술촌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바탕으로 한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웃기웃 탐정 사진관’, ‘떠들썩한 예술가 도서관’, ‘뚝뚝뚝뚝 탐험가 학교’ 등으로 참여자 중심의 실험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전경. **광양시 제공**

적이고 창의적인 과정형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기웃기웃 탐정 사진관’은 가상의 사건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통해 추리하고 단서를 수집하며, 사진으로 몽타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시각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창의적 사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아동은 사건을 재구성하며 상상력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떠들썩한 예술가 도서관’은 폐도서를 활용해 도서관 내 숨은 단서 찾기, 아지트 만들기, 종이 가구 제작 등 융합 예술 활동

을 체험하고 책과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뚝뚝뚝뚝 탐험가 학교’는 무인도에 표류한 아이들이 낯선 공간을 창조하고 탐험하는 설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체험 활동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며 ‘기웃기웃 탐정 사진관’ 참여자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사라실 예술촌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진행된다. ‘떠들썩한 예술가 도서관’과 ‘뚝뚝뚝뚝 탐험가 학교’의 모집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민선 8기 3년 마무리’... 광양시, 6월 정례조회 개최

새 정부 국정 맞춘 업무 추진 강조

전라남도 광양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6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는 시청 발전 유공자 8명에 대한 표창 수여로 시작해, 주요 당부사항 전달로 이어졌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헌신한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도농복합도시 중 2년 연속 호남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등급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모든 성과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정 시장은 본격적인 매실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모든 직원이 현장 지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기초, 각종 시책을 철저히 분석해 광양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전 공직자는 정부의 핵심 가치를 시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고,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전라남도를 직접 방문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광양시가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양=안영준 기자**